의약품 대기업판매 반대 서명운동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약사법개정이되면,

24시간 문을 여는 대기업마트에만 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 아산시에 사는 중소유통업자가 망하고,

현재 정부에서 일반약의 불법유통을 규제하지 않으므로 각종복제약이 여기저기서 판매되면서 2. 동네약국이 망합니다.

그러면 규제의 여력이 생기므로 잘 모르는 약을 유통시킨 일반 수퍼를 단속하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100여개의 대기업수퍼가 전국에 들어서고, 3. 중소수퍼가 망합니다.

이러면 수철리에서 대형마트까지 일부러 시간내서 가서 100개들이 묶음약 바리바리 사서 집에 쌓아놓고, 아무약이나 먹다가 병나시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쯤엔 물어볼 약사도 망해서 없습니다.

또, 이후 추진될 의료민영화가 되면, 건강보험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고, 진료범위도 줄어듭니다. 삼성생명 같은 민영회사의 건강보험을 들어야하는데, 현재 그 모델인 미국의 경우 60대분들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한 달에 100만원~160만원입니다. 160만원인 분들은 그럭저럭 버틸만한 금액으로 진료받고 약을 사 드시면 되지만, **100만원인 분들은 감기 진료 1회에 50만원 진료비가 나와도, 현금 50만원 다 내고 나중에 보험에서 타는 구조입니다. 사고가 나서 진료비 1000만원이 나오면 어쩌실 겁니까?**

**일반약 마트판매는 돈이 없어 병원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위한 사탕발림이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입니다**.

대기업재벌과 광고먹는 미디어재벌 먹여살리고, 기득권층만 공고히하고 서민은 힘들게하는 졸속적인 약사법개정 반대서명해주시고, 보건소를 축으로한 야간/휴일 공공의료센터/공공약국 추진을 도와주십시오. 공공의료/약료 강화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도와주십시오.